



올해 열린 경륜 31경주에서 경주 도중 넘어지는 낙차사고가 16건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절반을 차지했고 일요일 토요일 순이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결승의 길목... “금요일을 조심해”

낙차사고, 금요일에 많은 이유

올 31경주중 총 16건...금요일 낙차 전체 50%
몸 덜 풀린 상태에다 결승행 위한 경합 치열

경륜경주 중 낙차(경주 도중 넘어지는 사고)사고는 선수나 팬이나 경계 대상 1호다. 선수들은 큰 부상으로 이어져 생계와 직결되고, 팬들은 베틀에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몸싸움이 심한 경륜. 그렇다면 경륜경주가 열리는 금~일요일 사흘 중 어느 요일에 낙차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 주가 시작되는 금요일이다.

●낙차사고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 올해 열린 31경주를 대상으로 요일별 낙차사고(광명스포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낙차사고는 총 16건이었다. 이를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이 전체 낙차의 약 50%를 차지해 가장 많은 낙차가 일어났다.

일요일이 37.5%, 토요일 12.5% 순이었다.

금요일에 낙차가 가장 많은 것은 몸이 덜 풀린 상태에다 결승전 진출자를 가리는 예선전이 열려 선수 간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일요일 낙차도 만만찮은 것은 결승전 경주가 많아 승부욕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반면 토요일은 충분히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안정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용석 사업홍보팀장은 “낙차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승부욕 때문이다. 시기별로 보면 동계훈련이 끝나는 2~3월과 등급 조정 직전 2~3주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낙차사고 다음 경주에 고배당 전략은?

그렇다면 낙차는 경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낙차는 대부분 입상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큰 배당과 직결되고, 이 때문에 팬들은 다음 경주에 나설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계는 심리와 차이를 보였다. 낙

차 후 펼쳐지는 경주는 통계적으로 가장 사고도 적고 의외로 차분하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낙차 이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사고로 인한 불안한 심리가 작용해 안정적으로 경주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광명 7경주에서 김종현 선수가 낙차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음 8경주에서는 인기 1,2위 선수가 무난하게 결승선을 통과(양승 2.0배, 복승 1.7배)했다. 팬들의 우려와 달리 과도한 몸싸움도 없었고 전개 역시 순조로웠다. 2월 20일 토요일 13경주에서도 낙차가 발생하자 다음 14경주에선 역시 유력한 입상후보인 김동관, 정대창 선수가 골인하기도 했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낙차 이후의 경기는 불안한 심리 때문에 선수들이 평소보다 2~3배가량 더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팬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배당이 평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역이용해서 전략을 세운다면 유용한 베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신흥강자 류해광의 쿠데타...경정 5회차까지 6번 우승

승률 60%·연대율 80%...차세대 스타 우뚝
정민수·김효년·권명호 등 '시즌 5승' 2위권

올 경정판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신흥강자들이 시즌 초반 미사리 경정장을 장악했다. 대표주자는 류해광(7기·사진)이다. 경정 5회차까지 치른 시즌 초반 류해광은 우승 6회, 준우승 2회를 하며 승률 60%, 연대율 80%로 8일 현재 다승과 상금 부문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류해광은 지난해 18승을 기록하며 '준비된 스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3회차에서는 매 경주마다 최강자급 선수들이 동반 출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선두를 허용하지 않고 4연승을 쟁기는 기염을 토했다. 4연승의 힘은 모터 윤이 어느 정도 작용하긴 했지만 탄탄한 기본기와 승부를 가르는 결단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류해광은 2016년 미사리 경정장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류해광의 뒤를 이어 경정 터줏대감인 1,2기 강자들이 버티고 있다. 정민수, 김효년, 권명호, 장영태가 시즌 5승을 기록하며 2위권에 있고, 이재학, 여선규, 이태희가 4승을 기록하며 3위권을



경정 개장 한 달을 넘었다. 시즌 초반 미사리 경정장에는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절대강자' 여선규가 부진한 반면 류해광이 4연승을 몰아치는 등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스포츠조선이08

달리고 있다.

이밖에 송효석, 김민준, 윤동오, 정주현, 박성민 등이 대거 약진했다. 특히 송효석(8기)은 2014년은 2회, 2015년은 7회의 우승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벌써 시즌 4승을 쟁겼다. 또 지난해 우승 14회, 준우승 17회를 기록하며 역대 신인 선수들 중 가장 빠른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김민준(13기)도 올 시즌 벌써 우승 3회 준우승 3회를 기록하고 있어 세대교체를 꿈꾸고 있다.

지난해까지 경정장을 호령했던 여선규(4기), 김민천(2기) 등 '절대강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여선규는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8일 현재 승률 40%, 연대율 60%로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인지도나 명성에 비해서는 다소 초라한 성적이다. 지난해 26승을 기록한 김민천은 올 시즌 준우승 단 한차례에 그치고 있다.

경정 전문가들은 “올해 모터보트가 신형으로 교체되고 프로펠러·모터 고정지급제가 되면서 기존 강자들의 기술적 노하우가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었다. 앞으로 신흥 강자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부쩍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재호 기자



지난 2일 열린 경륜 공정 워크숍. 이날 워크숍에는 경륜경정사업본부,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해 불법도박 예방과 단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사설경주 근절 위해 경륜 단체 뭉쳤다

경륜경정사업본부 등 3개 단체 워크숍

“불법 사설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경륜경정사업본부,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경륜 시행체들이 불법 사설경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2일 경륜 시행체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도박의 효과적 예방과 단속을 위한 공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륜경정사업본부,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단속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참여기관 관계자들은 불법 도박시장 실태와 사설경주의 발생사례 및 조치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관계자들은 불법 사설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륜경정사업본부 정인권 공정팀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최소 100조원에서 최대 1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합법 배팅산업인 경마·경륜·경정 매출규모(약10조원)의 10배에서 1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불법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물임을 과도하게 부추겨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세금탈루, 음성자금 및 범죄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불법도박의 폐해를 강조했다.

연재호 기자



국민생활체육회의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가 3년째를 맞이했다. 학교 안팎 활동을 통해 전국 초·중·고교생들에게 운동의 재미와 건강을 선물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축구강습을 받고 있는 여고생들.

사진제공 | 국민생활체육회

3년째 맞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생활체육회, 초·중·고교 체력향상 도움

생활체육 733

국민생활체육회(회장 강영중)가 12월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이하 신나는 주말학교)'를 운영한다. 학생들은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토요일에도 다채로운 스포츠레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신나는 주말학교는 2014년에 시작돼 올해 3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30여만 명에 달한다. 신나는 주말학교는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이 있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체력향상을 돕고 있다.

●골프·승마·스킨스쿠버, '학교 밖 프로그램'

먼저 '학교 안 프로그램'.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배치한 스포츠강사들이 3월부터 매주 토요일 2시간씩 28주간 학교별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강습한다. 올해는 전국 470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6700명의 스포츠강사가 활동하게 된다. 교육부, 지역교육청,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가 협의해 운영 학교를 선정했다. 운영종목은 지난해 기준으로 축구가 가장 많았다. 배드민턴, 티

볼, 탁구, 피구, 농구, 뉴스포츠 등 88개 생활체육 종목이 운영됐다. 참가자는 해당 학교별로 20명 내외.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전국 229개의 시·군·구 생활체육회에서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개의 종목을 30주간 실시한다. 볼링, 골프, 수영, 승마, 조정, 클라이밍, 스케이트 등 학교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종목을 익힐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시·군·구 생활체육회들이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지난해 기준 63개 종목이 운영됐다. 지역에 따라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수상스키, 펜싱, 서핑 등 특색 있는 종목들도 운영됐다.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공식 홈페이지(sat.sportal.or.kr)에서 프로그램 실시장소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나는 주말학교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스포츠 상해 및 안전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고 시 대응체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경정, 오늘부터 '제1차 그랑프리 포인트 쟁탈전'

“그랑프리로는 티켓을 잡아라.”

2016 경정 '제1차 그랑프리 포인트(Grand Prix Point, 이하 GPP) 쟁탈전'이 9~10일 양일간 하남 미사리경정장에서 펼쳐진다.

제1차 GPP 쟁탈전에는 올 제1회차부터 제4회차 경주까지의 평균득점이 높은 선수 12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올 시즌 제4회차까지 출전한 7개의 경주에서 한 경주를 제외하고 1위 자리를 내준 적 없는 다승 1위 류해광(32, A1)과 2014년 이사장배 대상경정에 챔피언이었던 '백전노장' 사재준(42, A2)이 각

각 평균득점 순위 1, 2위로 GPP 쟁탈전에 초대받았다.

또한 최근까지 매 경주마다 순위권에 안착해 삼연대를 100%를 기록하고 있는 고일수(38, A1), 유석현(30, A1), 이태희(45, A1)도 참가자격을 얻었다. 올 시즌 기대주로 주목받는 문안나(32, A2)가 유일하게 여자선수들 중에 GPP 쟁탈전에 참가하여 남자선수들과 겨루게 된다. 2016년 GPP 쟁탈전은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연재호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